

北, ‘광명성 3호’ 기습발사

유난히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2012년 한 해도 저문 지금,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다른 해와는 달리 주변4국의 리더십 교체로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제 곧 집권 2년차로 접어들 북한 김정은체제가 내외에 표출하고 있는 움직임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질서구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담화(12.1)를 통해 12월 10~22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고, 이후인 12월 10일에는 “운반로켓의 1계단 조종 발동기계통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었다”면서 12월 29일로 발사시기를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돌연 12월 12일에는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서 운반로켓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이 발사에 성공하여 인공지구위성을 자기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보도에서는 “‘광명성 3호’ 2호기가 97.4도 궤도경사각으로 근지점 고도 499.7km, 원지점 고도 584.18km인 극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95분 29초이다”라고 밝히기까지 하였다.

특히 이 보도에서는 “이 로켓발사의 완전성공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자랑스런 결실이자 자주적인 평화적 우주이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획기적 사변”이라 주장하는 가운데 “온 나라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 있는 시기에 아버지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쏘아올릴 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한 것”이라 역설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기남, 리명수, 문경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분주소장회의’(11.23, 4.25문화회관)를 개최하면서 “분주소의 기본임무는 김정일애국주의를 보안사업실천에 구현하여 범죄와 위법행위, 사고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위하는데 있다”

고 역설하면서 “인민보안원들과 내무군 장병들은 민심을 장악하여 불순 적대분자, 속에 칼을 품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색출하여 짓밟게 버릴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김정일의 서한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30돌에 즈음하여 최태복, 양형섭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전국사법검찰일꾼열성자대회’(11.26)를 개최하면서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범죄와 위법현상을 없애고 법질서를 철저히 세워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밀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정치군사적 도발을 강화하면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책동을 짓부셔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가 하면 노동신문(12.6)을 통해서는 “김정일이 1,647회에 걸쳐 39만8천여km에 달하는 열차강행군을 통해 조국의 부강변영과 세계자주화 위업실현을 위해 공헌을 했으며, 그 중 열차로 외국방문을 한 역정은 6만4천여km에 이른다”고 보도하였으며, 조선중앙통신(12.7)을 통해서는 “김정은 당 제1비서의 영도따라 지난 1년간 태양절·전승절·청년절 등 경축행사와 700여개 단위에 대한 3대혁명 불은기 쟁취, 홍수와 태풍피해 복구, 모란봉악단 공연, 희천발전소·단천항 건설, 평양시 창전거리와 민속공원 건설 등 강성조선의 새시대를 개척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선전하였다.

이밖에도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경희, 김격식, 박도춘,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등 당·정·군의 최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항공절’ 기념모임(11.29)을 개최하였으며, 제5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 개최(12.3~6), 김정일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기념보고회(12.9), 안변대성 영예군인피복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12.9), 김정일 사망 1돌에 즈음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모임(12.11) 등을 개최하였다.

北조선중앙통신, “6.15시대 되살릴 것”

이어 대남면에서는 통일부 대변인의 금강산관광 관련 발표(11.19)에 대해 “관광객 신변안전담보를 운운하며 관광재개를 위한 남북당국간의 회담에 성의를 보이려는 것은 실제로 관광을 재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남조선 각계에서 높아가는 금강산관광 재개요구를 녹잡히려는 불순한 목적을 드러낸 것”이라 규정하는 가운데 “그 어떤 궤변과 모략소동으로서도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 범죄적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이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의 진상공개장(12.8)을 통해서도 금강산관광 파탄책임을 우리측에게 전가하는 가운데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새로 출현하게 될 남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런가 하면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11.28)의 ‘대선개입설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날조설’ 제하의 보도를 통해 “산송장이 된 이○○ 역도가 국무회의 등에서 북의 대선개입을 철저히 대비하라고 한 것은 최악의 위기에 처한 자들이 동족을 걸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여 보수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꾸며낸 궤변”이라 단언하면서 “괴뢰보수패당이 북의 대선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민심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고 선거참패를 모면해 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며 안보소동은 북남대결과 재집권음모의 산물”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조선중앙통신(12.11)을 통해서서는 “남조선의 각계층이 이번 대선에서 역적패당의 5년간의 반통일죄악을 단호히 심판하고 6.15시대를 되살릴 것”을 선동하였다.

이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1016호(12.6)를 통해서서는 우리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북에 대한 적대분위기를 조성하여 반북 국제공조를 실현해 보려는 흥계이자 남을 인권 불모지로 만든 자들이 누구의 인권문제를 거드는 것이야 말로 가소로운 정치만화”로, 중앙방송(12.7)을 통해서서는 “보수패당이 올해 감행한 김

일성부자 초상화 훼손, 통일항아리 조성,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노수희 구속과 동까모 결성 등 반북 대결책동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비난하였다.

한편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11.28)을 통해 “EU와 일본 등이 주동이 되어 조작해 낸 유엔에서의 반공화국 인권결의는 판에 박힌 허위날조자료들로 일관된 적대세력들의 정치모략선전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인권의 고상한 이념을 악용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어찌 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놀음을 전면배격하고 준열히 단죄한다”고 밝혔다.



▲ 김정은이 지난 해 11월 방북한 리젠궈 중국 정치국 위원(오른쪽)으로부터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젠궈(李建國)’ 정치국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대표단은 평양을 방문(11.29~30)하여 제5세대 지도자로 등장한 ‘시진핑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양국간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나이지리아 투자촉진위원회와 북한의 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 간의 양해문 조인(12.10), 일·북 체육인간담회 진행(11.27, 일본 신주쿠) 등이 이루어졌다. ■北韓

강석승 <북한연구소 연구위원>